

유기적인 목양에 대한 온전케 하는 훈련

2007년 1월 14일

메시지 1

사람들을 돌보는 부담을 취함

성경: 고후 5:14, 11:28-29, 출 28:4, 15-21, 29-30, 41, 고전 9:16-17

- I. **충분하고 철저한 기도를 통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부담을 유기적으로 취함**—고후 5:14, 11:28-29, 빌 1:7-8, 행 18:5.
- A. 우리 자신을 다시 헌신하고 주님과와의 충분한 접촉을 가진 후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주님의 부담을 취할 수 있다—마 9:36—10:1, 눅 6:12-13, 행 18:5.
 - B.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압력을 주실 것이다. 그것에 의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만 한다는 필요를 느끼며 깨닫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우리는 그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고후 5:14 각주 2 상반부, 11:28, 빌 1:7-8.
- II. **이것은 대제사장이 봉사할 때 에봇과 흉패를 입은 것으로 예표될 수 있다**—출 28:2,4, 15-21, 29-30, 41.
- A. 제사장 직분의 중심적이며 최종적인 증점은 바로 흉패이다—출 28:4.
 - 1. 흉패는 제사장의 봉사를 위한 제복이다—출 28:29.
 - 2. 대제사장은 열두 보석을 가지고 있는 흉패를 입었으며 각 보석에는 열 두 지파 중 하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출 28:16,17상, 21, 뱀전 2:5.
 - B. 판결 흉패, 우림과 둠뭉을 입음으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을 읽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인도하심에서 나온 중보기도의 분명한 부담을 가져 온다—출 28:29,30, 히 1:2, 계 3:14, 참조 출 28:30 각주 1 번, 2번, 눅 1:6 각주 4.
 - C. 에봇에 연결된 흉패는 중보기도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돌보심에 견고하게 부착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출 28:15-16.
 - 1. 에봇은 두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둘은 어깨 위에 달려 있었다—출 28:7-8, 12, 27.
 - 2.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고정하는 능력과 매는 힘과 묶는 역량을 가지고 계신다—출 28:22-28, 39:15-18.
 - 3. 우리가 돌보는 새로운 이들은 중보기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와 견고히 연결될 수 있다—고후 1:21, 살전 2:8, 17.
- III. **이것은 또한 제사장들의 헌신으로 예표될 수 있다**—출 28:40-41, 각주 1, 29:1-14.
- A. 히브리어에서 ‘헌신’은 ‘손을 채우다’라는 의미이다.
 - B. 이렇게 손을 채우는 것은 표시가 되어 그 사람을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분별한다—출 28:41 각주1.
- IV. **주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더 주실수록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더 받게 될 것이다**—마 25:14-17, 20-23.
- A.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달란트는 14절의 소유물이다.
 - 1. 주님이 그분의 소유를 우리에게 더 주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달란트를 받게 될 것이다.
 - 2. 달란트는 우리의 타고난 출생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부담과 관련된 것이다.
 - 3. 달란트를 더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도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B.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
- V. **사도 바울의 부담은 다른 이들을 위해 허비하고 극도로 허비되는 것이었다**—고후 12:15.

VI.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급우, 동료—을 재검토하고 그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기도하고 먼저 누구를 돌보아야 하는지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우리가 아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을 방문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에 우리 자신을 열어드림—고전 9:16-23, 롬 1:14-16, 히 13:17.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한 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부담을 취함

우리 자신을 다시 헌신하고 주님의 철저한 다움을 받은 후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부담을 취할 수 있다. 부담을 취하기 위해 특별하게 기도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취한 부담이 무엇이든 그것은 주님의 부담일 것이다. 우리는 사무적인 일들만을 먼저 관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마 집회에서 안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내하는 일 자체가 우리의 부담은 아니다. 그보다 우리의 부담은 안내함으로써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부담을 취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온다. 우리가 주님께 의해 완전히 다움을 받은 후 안내를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안내하든지 생명을 공급할 것이다.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들의 영 안으로 생명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성령은 항상 이러한 봉사를 존중하신다. (교회의 건축을 위해 열매를 맺고 목양하는 정상적인 길 22-23쪽)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압력을 주실 것이다.

그것에 의해 우리는 우리가 필요를 느낄 것이다.

어떤 형제가, "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압력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왜 압력이 꼭 필요합니까?"라고 묻자, 나는, "압력이 있어야만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를 묻는다. 그들은 종종, "한 가지 일에 대해 세 번이나 다섯 번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립니다."라고 대답한다. 왜 잊어버리는가? 그것은 당신이 결코 압력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묘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모두 이와 같다. 만일 당신이 잊어버렸다면, 당신은 하나님 또한 잊어버리시는 것을 나무랄 수 없다. 당신에게 할 마음이 있지만 무심코 몇 마디를 말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많은 사람의 기도는 마치 문장을 만드는 것과 같다. 당신은 그러한 사람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나서 먼저 기도의 첫번째 원칙을 어기므로 그가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기도의 첫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믿음이나 약속이 아니라 필요하다. 필요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고자 하시는 데 있어서, 첫번째 일은 그분이 당신에게 필요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번째 일은 먼저 당신에게 압력을 주어서 당신으로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이며, 그런 후에야 당신은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바울 또한 이와 같았다. 그는, "내가 내 형제와 내 골육지친을 위하여서 자신이 저주받고 그리스도와 나눌지라도 나는 원하노라"(롬 9:3)고 말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가 구원받지 않는 편이 낫다고 했다. 이러한 말들은 결코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며, 또한 감정의 작용도 아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대한 압박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느낌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말을 배우지만, 결코 기도의 효력이 없으며 쓸모없게 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압력이 없기 때문이다. 일찌기 어느 누가 만일 하나님이 나를 듣지 않으시면, 나는 일어서지 않겠다고 기도했는가? 당신 내면에 진실로 이러한 느낌과 말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들으실 것이다. 아마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이 기도의 말을 따라서 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압력을 느끼는 것이다. (워치만니 전집 1집, 20권 244쪽)

대제사장은 중보기도의 분명한 부담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을 읽을 수 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은, "너는 우림과 둠뭇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들지니라"고 말한다. 데이빗 베런(David Baron)의 저서 '고대의 성경과 현대의 유대인(The Ancient Scriptures and the Modern Jew)'에는 우림과 둠뭇에 관한 글을 담고 있는 부록이 있다. 이 글에 의하면 흉패 위에 있는 열 두 이름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스물두 자 가운데 열여덟 자를 포함하였다. 나머지 네 자는 둠뭇이라 부르는 부분품에 부착되었다. 히브리어 단어 둠뭇은 '완전케 하는 자들', 또는 '온전케 하는 자들'을 뜻한다. 그러므로 둠뭇이라 부르는 추가적인 부분품을 지닌 흉패 위에서 모두 스물 두 자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볼 수 있다. 타자기 키 위에 있는 스물여섯 자의 영어 알파벳이 단어나 구절이나 문장이나 단락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듯이 흉패와 둠뭇 위에 있는 스물 두 자의 히브리어 알파벳은 단어들이나 문장들을 관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6, 180-181쪽)

에봇에 연결된 흉패는 중보기도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돌보심에 견고하게 부착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흉패는 제사장의 의복의 첫째 항목일 뿐 아니라 이 모든 의복의 중심 항목이다. 먼저 대제사장은 그의 몸 전체를 덮는 긴 속옷을 입었다. 그러고 나서 속옷 위에 그는 겹옷을 입었다. 이 겹옷은 아마 무릎까지 이르는 상의의 길이였을 것이다. 그 겹옷 위에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속옷과 겹옷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에봇은 독특하다... 에봇은 겹옷 위에 있었으며 겹옷은 속옷 위에 있었다. 앞의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에봇에 두 건대가 있었고 그 위에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들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은 각각에 열 두 지파들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진 열 두 보석으로 이루어진 흉패를 입었다. 우리는 판결 흉패가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하는 하늘에 속하고 신성하며 영적인 타자기의 기능을 하였음을 보았다. 이 하늘에 속한 타자기가 제사장의 의복들의 가장 중심이다.

우리는 흉패가 교회를 예표하고 에봇이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보았다. 그러므로 에봇 위의 흉패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슴 위에 품은 바 됨을 상징한다. 더 나아가, 흉패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더불어 제시하심을 가리킨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도를 알게 하시는 신성한 알파벳을 지니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구약의 예표들이 신약에서 볼 수 없는 세부 항목들을 계시함을 본다. 나는 신약에 계시된 것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표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를 알게 되었음을 증언할 수 있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3, 159-160쪽)

이렇게 손을 채우는 것은 표시가 되어서 그 사람을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분별한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 위임하는 것은 그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며, 그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를 분별하는 것이다. 어떤 이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의 손이 채워져야 한다. 그의 손을 채우는 것은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그를 분별하는 표시가 된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내 손에 채우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분별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빈손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사람은 다 분별된 사립이고 거룩케 된 사람이다.

... 여기서 '위임하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빈 곳을 채운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빈손이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빈손에 그리스도를 채워야 한다. 우리의 손을 채우는 것은 의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분별하는 것이며,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이웃이나 직장에서 우리가
분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속적이고 믿지 않는 이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제사장들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분별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손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나 직장이나 집이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손에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야 한다.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은 일반적인 이들에게서 우리를 분별하는 표시가 될 것이다.
다른 이들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빈손으로 있지만, 우리의 손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리스도로 손을 가득 채우는 것이 제사장이 되도록 거룩케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33, 10-11쪽)

주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더 주실수록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더 받게 될 것이다

14절은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노예들에게 맡겼다고 말하지만, 15절은 노예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15절에 있는 달란트가 14절에 있는 소유임을 가리킨다. 달리 말해서
주님은 그분의 소유를 우리를 위한 달란트로 쓰신다. 예를 들어서, 복음은 주님의 소유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달란트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는 주님의
소유이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하나의 달란트가 된다. 동일한 원칙으로 모든
믿는 이들은 주님의 소유이다. 믿는 이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들은 우리의 달란트들이 된다.
모든 믿는 이들이 없다면, 나의 달란트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교회는 주님의 소유이다.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달란트가 된다. 주께서 그분의 소유를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실수록, 더욱더 우리는 달란트를 많이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더 많이
주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달란트를 갖게 된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65, 756-759쪽)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급우, 동료—을 재검토하고

그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기도함

활력 그룹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접촉하고 있는 우리의 친척들에게
복음의 빛을 갚을 필요가 있다(롬 1:14-15). 많은 우리의 친척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당신을 이끌어서 그들을 위해 육 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실지도 모른다. 당신은 너무 오래 기도할 필요는 없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에 당신은,
"주여, 저의 어머니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반 년 동안 주님께
부르짖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라.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책임을 져야 할 우리의 친척들에 대한 복음의 빛을 청산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이웃은 두 번째 범주이며, 우리의 급우들과 동료들은 세 번째 범주로 간주되어야 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첫 번째 범주)과 유대(두 번째 범주)와 사마리아(세 번째 범주)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행 1:8). (활력 그룹의 긴급한 필요에 대한 교통
메시지 21, 24-25쪽)